

# 수익률 1236%... '극한직업' 역대 최고치 넘보



### 누적 관객 1283만여명 기록 총제작비 90억·매출 1113억 273만명 더 모으면 1500% '7번방의 선물' 수익률 넘어서

7번방의 선물'을 누르고 역대 코미디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사진)이 누적 수익률이 1200%를 돌파하며 역대 장편 상업영화 최고 수익률을 넘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10일 하루에만 65만3884명을 모아 누적 관객 1283만5396명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1113억296만 원이다. 이 영화의 총 제작비는 약 90억 원. 순제작비 65억 원에 현재까지 P&A(홍보마케팅) 비용이 약 25억 원 가량 투입됐다. 총 제작비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률은 1236%다.

현재까지 총 제작비 20억 원 이상 투입된 장편 상업영화 중 최고 수익

률 타이틀을 가진 영화는 7번방의 선물'(총제작비 61억 원)이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1281만 명을 동원해 누적 매출 약 914억 원을 기록했다. 최종 수익률은 1498%. '극한직업'은 10일까지 7번방의 선물의 관객수를 2만 명 가량 앞질렀지만 6년 전에 비해 영화 관람료가 상승한 영향으로 매출액은 178억 원 가량 초과했다.

'극한직업'이 누적 매출액 1350억 원을 돌파하면 수익률이 1500%로 7번방의 선물'을 뛰어넘게 된다. 향후 약 273만 명을 더 모으면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극한직업'이 여전히 1700개 가량되는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고 평일에도 30만 명 안팎의 관객을 모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목표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이 경우 '극한직업'은 15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해 '명량'(1761만 명)에 이어 역대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오르게 된다"며 "'극한직업'과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이 모두 배우 류승룡이라는 점도 이채롭다"고 말했다.

한편 저예산 독립영화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둔 영화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다. 총 제작비 3억 원으로 373억 원의 매출을 내 수익률 12400%를 기록했다.

'워너소리'(총 제작비 2억 원)와 '부러진 화살'(총 제작비 15억 원)이 각각 9500%와 1700%로 그 뒤를 잇는다

## 방탄소년단, 韓 가수 최초 美 그라미 어워즈 시상



그들 방탄소년단이 그라미 어워즈 시상자로 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10일(현지시간) 미

했다.

이날 베스트 알앤비 앨범(Best R&B Album)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후보자 소개에 앞서 "한국에서 자라오면서 그라미 어워즈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꿔왔었다.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 팬들에게 감사하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한 소감을 직접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심어송라이터인 H.E.R.를 수상자로 호명하며 트로피를 전달했다.

시상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소속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에서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오늘 그 꿈을 이루었다"며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하게 돼 무척 영광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다.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준 아미(ARMY)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전 세계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과 시상식에 초대해 주신 그라미 어워즈에도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심어송라이터이자 세계적인 아티스트 알리샤 키스가 호스트를 맡은 제 61회 그라미 어워즈에서는 총 84개 부문을 시상했다. 역대 그라미 수상자인 알레시아 카라, 존 메이어, 메간 트레이너 등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시상자로 참석했으며, 다이아나 로스, 레이디 가가, 제니퍼 로페즈, 마이리시 아이리스, 숀 텐더스, 카디비, 카밀라 카베요 등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열혈사제' 믿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열혈사제' 제작진만으로도 믿고 본다.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주연의 SBS 첫 금토드라마 '열혈사제'가 오는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뜨거운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열혈사제'가 방송 전부터 믿고 보는 드라마, '꼭 봐야 할 드라마'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탄탄한 제작진에 있다. 드라마 '김과장' 열풍을 일으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필력을 확인시킨 박재범 작가와 편지, '갯속말' 등 웰메이드 드라마를 연출했던 이명우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박재범 작가는 "분노할 때는 분노 해라"고 말하는 '열혈사제' 김해일(김남길 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죄 짓고도 간증 한 번으로 마음 편히 사는 나쁜 놈들과 부패한 세상이다. 나쁜 놈들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고, 분노의 목적을 하는, 씩씩한 사제의 등장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전망이다.

앞서 박재범 작가는 속을 뽐내주는 '김과장'의 팽팡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사이디를 안긴 바. 현실을 마구 찢어질리는 박재범 작가의 풍자와 해학, 코믹한 터치에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했다. 이렇듯 웃음 속에 현실을 담아내는 박재범 작가의 특유의 감각은 '열혈사제'에서도 이어진다. 익스트림 코믹 수사극이라는 장르로 구형열 박재범 작가의 워트 비는 스토리,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향연은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다.

이명우 감독은 이러한 박재범 작가와 시너지를 발휘할 최고의 감독이다. 편지, '갯속말' 등 웰메이드 드라마를 탄생시킨 이명우 감독은 탁월한 연출력을 자랑한다. 극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능력, 디테일한 연출은 몰입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특히 작가, 배우들과 극강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는 이명우 감독의 능력은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탄탄한 바탕이 되기도 했다.

믿고 보는 제작진의 만남으로도 '열혈사제'의 첫 방송이 기다려진다. 이미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들만으로도 '열혈사제'는 박재범 작가, 이명우 감독이라는 새로운 흥행 조합을 예감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고준, 금세록, 이문식, 김원혜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군단까지 더해지니, 막강 조합일 수밖에 없다. 많은 예비 시청자들이 벌써부터 '열혈사제'의 열혈 마니아를 자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는 15일 오후 10시 방송

## '대화의 희열' 시즌2 확정...3월2일에 돌아온다



'대화의 희열'이 시즌2로 돌아 특히 '대화의 희열'은 기존의

온다.

지난 11월 시즌1을 마무리했던 토크쇼 KBS 2TV '대화의 희열'이 오는 3월 2일 시즌2로 시청자와 재회한다. '대화의 희열'은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원나잇 토크쇼. 사라졌던 인기 게스트 토크쇼를 새로운 감각으로 부활시키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제 '대화의 희열'은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핫이슈' 예능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즌1 종영 후에도 시즌2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잇따르며, 시즌2 편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돌아오는 '대화의 희열' 시즌2에서는 시즌1에 이어 유희열이 MC를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대화를 이끄는 MC 유희열의 능력은 어디서든 듣지 못했던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화의 주제가 될 시즌2 게스트 라인업과 패널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 '대화의 희열'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밀도 높은 대화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게스트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시 한 번 목말랐던 대화의 '희열'을 느끼게 해줄 토크쇼의 귀환이 반갑고, '대화의 희열'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더해진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음력 1월 8일)



▶**운세** 가족 간에 신병수 아니면 직업을 변동하려는 운이 있을 듯. 2, 4, 10, 11월생 방향에서 벗어나야겠다. 기술, 연구, 공직자는 가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 자아도취에서 깨어 일어나라. 뛰어난 능지 않았다. 미혼자는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갈 것.



▶**운세**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 것. 부족한 것을 택할 때 후일 만족이 더욱 클 것 같다. 금융, 화학, 의료, 금속업계 그, ○, ㅎ 성씨는 주머니 부기가 크겠으니 귀가 시간 늦지 않도록 서두름이 좋겠다.



▶**운세** 3, 4, 8, 10, 12월생 하는 일 이상 없고 부분 간에도 이상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를 생각하고 있는 그, 나, 사, ㅈ 성씨는 하나만 알지 말고 다음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때다. 풍선이 계속 커지는 재미로 불타간 터져 버린다.



▶**운세**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가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5, 6, 7월생은 잡은 고기 놓쳐 놓고 안타까워하는 그, 지난 것은 빨리 단념하라. 친할수록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할 때다. 서, 남간에 있는 자에게 마음의 문 열려라.



▶**운세** 바, ㅈ, ㅎ 성씨는 도움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쥐, 뱀의 뜻과 행동을 무시하다가 날벼락 맞을까 염려된다. 1, 3, 9월생 예능, 예술, 의료, 창작, 기술직 종사자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의 시비를 조심할 것.



▶**운세**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감추는 그, 4, 5, 7월생 범, 뱀, 닭기가 염려하고 있다. 진실을 털어놓고 원위주로 돌아감이 좋겠다. 증권, 화공, 세탁업은 변동수와 이사수 있을 수 있으나 서두르는 말 것. 노란색이 길.



▶**운세**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림의 떡.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돈을 잡지 말 것. 그, 바, ○ 성씨는 언행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한마디로 모든 것 그로칠 수 있다. 그동안의 굶던 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운세** 상대를 타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 붙이 어떨까. 그, 가, ㅈ, ㅈ 성씨는 실속 없이 심심만 피곤하다. 잊을 건 잊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1, 8, 10월생 애정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엮여가니 애간장 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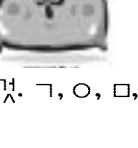
▶**운세**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시달림이 올 수 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라. 잘못하다 내 것까지 빼앗기며 뒷북 맞는 그. 1, 2, 3월생 점정색은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니 피할 것.



▶**운세** 힘겨울 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처리하지만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남의 일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이라. 사, ○, ㅈ 성씨는 범, 돼지띠로부터 원망 들겠다. 7, 8, 9월생은 노란색을 삼가라. 자신이 나약해짐을 알 것.



▶**운세** 남에게는 알차 보이지만 속은 빈 껍질뿐이구나. 현재는 인내가 필요. 무한한 힘과 성장이 숨겨져 있으니 하고 있는 일 계속 노력하라. 1, 6, 8, 10월생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알 것. 파란색이 행운.



▶**운세** 힘에 겨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나. 2, 7, 11월생 여성은 몸과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상태라고 자칭할 못했다 속아 넘어갈 수. 타인의 효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 것. 그, ○, ㅈ, ㅈ 성씨는 불가능이란 없으니 용기백배하여 자신을 얻을 것.